

<1면에 이어>

신기전발사시연회



▲신기전 복원 시연회(1474년 국조오례 병기도설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 복원하였다.)

이러 참석한 전원은 사회자의 안내로 앞 열에 기수단, 의장대, 군악대행렬을 갖추어 대청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신기전발사 시연장인 행주산성공원 한강 강안지역까지 '퍼레이드'로 축제행진을 하면서 이동하였다.

이러 신기전발사시연회 행사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발사 시연에 앞서 채연석 박사(전 한국항공우주 연구소장) 주관 개막선언으로부터 내빈소개, 특히 이날 축사에서 박윤희 고양시의회의장은 임진왜란하면 이순신 장군만 알았지 이렇게 임란의 성전지 '행주산성의 일'을 여덟 적에는 제대로 몰랐



▲행주산성 공원에서 신기전 100발을 발사하고 있다.(행주대첩에서는 번이종이 개발한 화차에 없었다.)

다며 아울러 권율장군에 대해서도 지역 내 행사로부터 중앙정부에 적극지원을 받도록 이곳 지역 김태원 의원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제외하여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어 국립과천과학관 채연석 박사의 신기전에 대해 소개가 있었다. 신기전은 최초 세종29년(1447)이며 현 제작 설계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당시 세종대왕의 과학문명 창조가 꽃피운 결정체이다. 장비의 유래는 '구신 불은 기계화살'이란 뜻으로 장비의 규격 등은 길이가 5.6미터, 화차에 신기전 발사대를 두고 사용하였으며 중·소 신기전 등을 100발의 화살을 꽂아 발사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적이 숨어 있을 만한 곳에 신기전을 쏘면 겁에 질려 스스로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갈, 화살, 창 그리고 총포가 전부이던 시절 굉음을 내고 불을 뿜으며 날아



▲이날 과천과학관은 2단로켓인 신화신기전 발사를 시연하였다.(세계 최초 2단로켓으로 세종 27년부터 군기감정 박경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

가 폭발하는 무기의 파괴력도 무섭지만 적에게 큰 공포를 주었을 것이다. 임란 전 최초 실전사용은 세종 때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여진족으로부터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 때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지금의 미사일과 같은 신무기였다. 신기전의 상세한 자료는 1474년 편찬한 국조오례서례 병기도설에 있어, 오늘 이 자료에 의해 복원 시연한 것이다. 산화신기전은 최초 2단형 로켓이며 중신기전과 대신기전은 발화의 폭탄이 약통에 설치되어 목표지점에서 자동폭발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화차는 세계최초의 이동식 발사대이다. 이러한 2단 로켓은 1529년 루마니아의 콘레드하스가 설계한 것이 오래된 기록으로 있지만 산화신기전은 이보다 80년 앞서 세종조에 군기감정되었던 박강(朴剛)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주산성 기념관에는 신기전과 번이종이 개발한 화차, 총검류가 전시되어 있다.

행사 후 이날 참제했던 권민족친은 권영범 총장공중회장의 안내로 산성입구 한일관에서 갈비탕으로 오찬을 하였다.

<기사 권범준 본원기자, 촬영 권범준, 권경일기자>

인천광역시 종친회 신년교례회 및 척사대회

인천종친회(회장 권진수)는 지난 2월23일(음력정월 대보름 전날) 정오에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안동권씨인천종친회관(3층)에서 인천종친회 고문 및 명예회장단 그리고 현 임원진 등 지역족친 및 가족을 포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신년교례회 및 척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경 총무에 의하여 시조님 망배로부터 족친 상호간 새해 친견례를 갖은 후 권진수 회장(추밀공파, 37세)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인천광역시 안동권씨종친회 여러 족친님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되어 한편 숙연(肅然)해집니다. 저는 금년 신년 초 회장직을 맡게 되어 오늘 이렇게 지역족친님과 교례 및 척사대회를 맞이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안동권씨대종원 총재님이 참석키로 예정되었는데 행사가 중복되어 좀 어려우니 여러 족친 분께 두루 근황을 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년 초 대종원신년교례회 행사에 참석하여 평가 많은 감흥(感興)을 받았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200여명이상이 참석, 내빈으로써 권이혁 장관님, 권영해 전안기부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오을 전국회사무총장, 권택기 전광진구 국회의원, 장소가 마치 국방부지역이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권오성 육군대장 등 이외도 안동권씨대종원(총재단, 파종회장, 지역종친협의회 회장단, 종무위원, 대의원)등 대거 참석하는 등 총재님 신년인사로부터 참석하신 내빈들의 축사 등으로 신년 초 권문의 뜨거운 열죽애를 다졌습니다." 라고 소개한 후

진수 회장은 유서 깊은 전통과 지극히 내 우리족친이 3만 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현 전통을 계승하여 부족한 점



▲인천광역시 종친회는 2월23일 인천종친회관에서 신년교례 및 척사대회를 개최하였다(행사후 단체 기념촬영 장면).

은 계속 보강하겠다고 피력하였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만사 근심 없는 한해가 이룩되시길 간곡히 기원드리다고 인사하였다. 이어 권오섭 전회장의 축사와 대종원 범준 홍보부장의 대종원 공지사항으로 3월14일 제420주년 행주대첩제 행사와 4월 초순(양력 4월5일 오전9시)시조님 춘향제례가 있으며 4월28일 영주종친회청년회 주최로 제25회 안동권씨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공지하고 모든 내용은 안동권씨문을 대변하는 '안동권씨종보지'를 많이 애용하시면 권문의 제반 보화, 발자취가 월간지로 상세히 볼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이러 신년교례회를 마치고 중식, 다과회 만찬으로 이어졌으며 메뉴는 가족부녀회에서 정성껏 회관에서 직접 요리한 곱탕과 소고기수육, 떡 등으로 잔치상을 차려 정월 대보름 전야제 축제 행사로 족친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속 덕담으로 술잔을 나누며 흥이 오른 상태에서 조별 진행 된 율놀이 대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척사대회 결과로서 남성팀 1등(권철수 부회장, 황토전기장관)과 여성팀 1등(권병덕 자원위원 부인이선화씨 황토전

기장관) 등이 시상되었다. 이외도 남, 여성팀 5등까지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으며, 이날 참석한 전원에게 권오을 당회 사무총장이 선물셋트(등산용 낚시물병셋트, 구운소부장의 대종원 공지사항으로 3월14일 제420주년 행주대첩제 행사와 4월 초순(양력 4월5일 오전9시)시조님 춘향제례가 있으며 4월28일 영주종친회청년회 주최로 제25회 안동권씨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공지하고 모든 내용은 안동권씨문을 대변하는 '안동권씨종보지'를 많이 애용하시면 권문의 제반 보화, 발자취가 월간지로 상세히 볼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권진수 회장주요프로필

- 1952년생
- 학력 △단국대대학원정책학 박사과 정수료('09)
- △동대학원 행정학석사(1982)
- 주요경력 (現)경기도양평(양서고교 교장 재직)
- 26회교육직 행정고시합격
- 前호원대학교교수(산학협력)
- 최근저서 '따뜻하게 슬기롭게가라'
- 45권 저서

강릉종친회(江陵宗親會) 제36차 정기총회

강릉종친회(회장 권오을)는 지난 2월21일 강릉농협 문화센터에서 족친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신년하례를 겸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족친 상호간의 건강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권오을 회장에 능동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권오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종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시조묘역고유제를 비롯하여 선조유적지탐방, 원로회원간담회 등 각종 회합과 지파종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안동권문의 법도와 족친의 끈끈한 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특히 4.11총선에서 권성동(權性東)족친을 국회의원으로 재선시키는데 힘을 모아준 족친들의 엄청난 결속력에 감복하였다고 회고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자랑스러운 가문을 세워 나가는데 앞장서자고 하였다. 이어 2012년도 종무활동보고와 결산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

다. 강릉종친회는 금년도에도 연례 행사로 시행해 오던 선조유적지탐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보학강좌와 전통의례강좌를 각회씩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등산회와 서예교실은 족친간의 친목을 다지고 건강과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서 더 많은 참여를 다짐하였다. 이어 현 집행부의 임기만료로 신임회장에 권영각(權榮奭, 추밀공파 34세)씨를, 부회장에 허길(赫亞公 36세), 장식(추밀공파34세), 오록(북야공파 35세)씨를, 감사에 순구(추밀공파 37세), 오중(북야공파 35세)씨를 선임하였다. 신임 권영각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우리 종친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종인들의 중지를 모아 미려이지만 회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종인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신임 권영각회장은 1941년생이며, 43여년간 교직에 몸 담아온 초



▲강릉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오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등교장 출신이다. 인재양성과 문화탐구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종사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식전행사로 2012년도 시조.남중공훈장제 장편을 권명준(강릉농협 재직)족친이 풍영상으로 자체 제작.방영하여 큰 감명을 받았으며, 본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권정달 대종원 총재님을 비롯 권길상 지역종친회연합회장, 권혁승 추밀공파대종회장과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권오열 주택협회상임부회장 등 출향인사들께서도 축하회환과 축전을 보내 주어 총회의 의의를 더욱 높여 주셨다. <강릉종친회 혁은>

“영주 청·장년회 제25회 전국체전 개최”

제25회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회 체육대회가 다가오는 4월28일(일)에 영주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의 탄생을 처음 발의한 영주청장년회에서 24년 만에 재유치를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주청년회는 1974년쯤에 발족되어 현 권영순회장이 재선이 되어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계신 족친님들도 참석하게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권문의 한마음 잔치가 되었습니다. 한편 권영순 대 회장은 지역사회의 봉사하는 솔선수범으로 지역 권문 뿐만 아니라 타 성씨로부터

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력으로서는 경북전문대·동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광산업(주)대표, 새마을문고영주시지부회장, 영주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영주시비봉리자문소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봉사에 공헌했으며, 현 (주)아모르커크벤션웨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주시지부 유도회 부회장, 영주시상공회의소이사, 영주선비문화수련원 자원위원, 영주시 청년유도회장, 세계 유교문화축전 집행위원으로 있으면서 영주지역 유교문화

발전에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 영주 청·장년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권영순 ▲부회장:권오주·권현철·권영철 ▲사무국장:권오석 ▲총무:권용일
- 체육대회 준비위원장:권순욱 (직전회장) ■사무국장:권오국 (종친회 사무국장) ■총무:권태식

<권영순 회장>

안양종친회 척사대회겸 율례회

안양종친회(회장 권정섭)는 지난 3월3일 오전 11시, 안양종친회관에서 남여족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례회 겸 척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오을총무의 사회로 국민 의례와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안양종친회 발전에 크게 헌신한 故권수창, 일삼, 영신씨에게 망배가 있었으며 이어서 권정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사년 율례에는 모든 가정에 좋은 일만 있고 나쁜 감정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감정은 오래가지고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였

으며 우리 모두는 시조 태사공님의 유덕을 가슴에 안고 일족간에 상부상조, 공존공생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말했다.

다음 정섭회장은 권오복대종원 편집위원, 권승구마포종친회장, 저의 부인이 탄 행사보다 이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각 소개했다. 1부행사를 마치고 2부행사로 회관 옥상으로 이동하여 오찬후 척사대회에 들어가 향열림으로 구성해 ▣단체전은 4명 1팀 4개팀으로 ▲우승34팀 이상인 권영광 외 3인, ▲준우승:권무일 외 3인팀(36팀), ▣개인전 ▲1등:김예자(며느리),



▲안양종친회관 옥상에서 척사대회에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등:권무일(36팀)·권영현(34팀), ▲3등:권정필(33팀)·권기주(36팀)·권우상(37팀)씨가 차지했으며,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답례품으로 '블루베리' 한박스씩을 모든 상급과 상품은 정섭회장이 협찬했으며, 오후 4시30분에 한마당 잔치를 모두 마쳤다. <권오을 총무>

지역단신

서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에 권기영씨를 선출했다.

▲부정공파안동문목회(회장 권영역)는 지난 2월22일 안동시 태화동 '장자방회관'에서 넘어파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척사대회를 가졌다.

▲안동 임하중친회는 지난 2월28일 안동 금소리 '목화식당'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에 권영성씨(임하노인회장)를 선출했다. <권혁세 기자>

대전청장년회 회장 선출

대전청·장년회는 지난 2월7일 대전종친회 사무실에서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회장에 권용기씨(59·부정공파·38세 기성화학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회장은 수락인사에서 침체된 청·장년회를 적극 육성발전시키고 오는 2014년 제26회 안동권씨 청장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부회장은 권중준(시의원·세무사), 권용제(토건업)이다. 연락처:회장 권용기 010-4404-5400, 부회장 권중준 010-5402-7819 <권호준 대전종친회장>

동정

▲권철현 세종재단 이사가 "아웅산테러 30주년을 맞아" 4일 발족한 아웅산 순국사절추모비 건립위원장에 선임됐다.

▲'권오을 포럼 오늘' 공동대표는 26일 '포럼 오늘'회의실에서 오후 5시부터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19일 오후 6시 안동문화관 관장지내 리첼호텔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평가를 통해 각 자치단체가 상생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역설했다.

▲권준수 서울대학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산사회복지재단 제6회 아산의학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주)가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권오현 부회장 1인 대표체제에서 3인 대표이사(윤부근·신종균)체제로 전환했으며, 또한 지난 2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권점주 신한생명(주)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350여명의 새내기 설계를 대상으로 보험업의 본질과 설계사들이 가져야 할 고품에 대해 강연했으며 또한 지난 19일 '2013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CEO 33인)에 선정됐다.

▲권영종교수(영주·56세·추밀공파·34세)는 지난 2월2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의무직종재무에 관한 최소 주의적 이동분석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창수공종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3월9일 오후1시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재실에서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인 공동대표중, 최연장자인 회장 병홍씨를 의장으로 추대하고 총무인 병기의 사회로 2012년 회계년도결산 및 예산안 등 승인을 하고 3인 공동대표체제를 끝내고 단독회장으로 서천군 화양면 대하리 출생인 35대 손인 권병돈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감사에는 병문(관교), 영홍(관산), 총무 병기가 선임되었으며, 그동안 총재사고와 임대건으로 발생이 많았으나 1인체제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창수공종회 권병기 총무>